

보도시점 2026. 4. 28.(화) 15:00
< 4.29.(수) 조간 >

배포 2026. 4. 28.(화)

한-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개시

- 통상교섭본부장,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협상 세칙 확정 -
- 글로벌 원유·나프타 트레이딩 메이저사들과 중동 상황 논의 -
- 테마섹, 쇼피 등과 투자유치, K-소비재 역직구 활성화 등 협의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7일~28일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한-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(FTA)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,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. 아울러, 글로벌 원유·나프타 트레이딩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,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를 방문하여 투자 유치와 K-소비재 역직구 활성화도 논의하였다.

이번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자 한-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이연주 의원도 동행하여 기업 간담회, 투자유치 활동 등 주요 일정에 참석했다. 이 의원은 산업통상 분야 국회 상임위 활동과 기업·법조 경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로서 관련 논의에 참여하였다.

① 한-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(FTA) 개선 협상 개시

산업통상부는 여 본부장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계기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4월 28일(화) 한-싱가포르 FTA 개선을 위한 협상 세칙에 서명하면서 개선 협상을 공식 개시하였다. 양국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. 이번 서명식에서는 여 본부장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간킴용(Gan Kim Yong) 부총리 겸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협상 수석대표가 협상 세칙에 서명하였다.

이어 산업통상부는 재정경제부,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-싱가포르 FTA 개선을 위한 1차 협상을 개최하였다. 이번 1차 협상에서는 공급망, 그린경제, 항공 MRO 및 무역원활화 4개 분과의 협상이 진행되었다.

② 싱가포르와 장관급 통상 현안 협의

여 본부장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의 ①장관 겸 부총리(간김용), ②디지털·공급망·에너지 담당 장관(탄시렝), ③WTO·다자통상 담당 장관(그레이스 푸)와 회담을 가졌다. 이번 회담에서는 한-아세안 FTA, 한-싱가포르 FTA 등 개선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여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확보하고, FIT-P*, GEPA** 등 자유무역을 위한 소다자연대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다. 또한,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여 에너지, 바이오·제약 등 분야의 공급망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.

* Future of Investment and Trade-Partnership : 자유무역을 위한 싱가포르·스위스·뉴질랜드·UAE 등 16개 유사입장국 간 연대체

** Green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: 싱가포르·칠레 등이 추진하는 그린경제 협정

③ 중동 상황 관련 글로벌 에너지 트레이딩사들과 릴레이 간담회

여 본부장은 이 의원과 함께 아시아 최대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이자 글로벌 기업들이 집결해 있는 싱가포르에서 에너지 트레이딩사들 및 원자재 정보 분석 기관과 릴레이로 면담을 진행하였고, 현지에 진출한 우리 정유·석유화학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※ (트레이딩사) 글로벌 1위 비톨(Vitol), 3위 트라피구라(Trafigura)

(원자재 정보 분석 기업) S&P 글로벌

(현지법인) GS칼텍스, SK에너지, 현대오일뱅크, S-Oil, LG화학, 한화토탈에너지스

먼저 에너지 트레이딩 기업인 비톨과 트라피구라 및 원자재 정보 분석 기관인 S&P 글로벌과 면담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다. 이어 싱가포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정유 4사와 간담회를 통해 원유 및 나프타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,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
④ 투자유치 및 역직구 활성화

이어 여 본부장은 이 의원과 우리나라 첨단분야에 대한 싱가포르의 투자 확대 및 K-소비재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유치 활동에도 나섰다.

먼저,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(Temasek)을 방문해, 바이오·유통·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 투자해 온 테마섹과 AI·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이 강점인 한국 간에 지속적인 투자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. 아울러,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(Shopee)를 방문하여 K-패션·뷰티·식품 분야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상품 전용 코너, 인증 및 물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
⑤ 미래형 제조 AI 및 항만 자동화 현장 방문

여 본부장과 이 의원은 싱가포르의 첨단 제조혁신 거점인 ‘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(HMGICS)’와 세계적 항만 운영사인 ‘싱가포르 항만 공사(PSA)’를 잇달아 방문하여, 미래형 제조AI 현장 및 물류 자동화 기술 현황을 점검하였다. 먼저 한국의 스마트공장 모델과 싱가포르의 혁신 생태계가 결합한 현대차그룹의 HMGICS를 방문하여 자동화 공정 제조라인, 디지털 커맨드 센터(가상제조 환경) 등 미래형 제조 AI 혁신 현장을 둘러보고, 현장 관계자들과 M.AX(제조 AI 대전환) 정책의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.

여 본부장은 “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FTA 개선 협상 개시에서 원유·나프타를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, 투자 유치, 역직구 활성화 등 주요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.”고 밝히며, “이번 방문이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강조하였다.

이 의원은 “지금의 공급망 위기는 에너지 수급 차원을 넘어선 경제 안보 차원의 문제이며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허브와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.”고 강조했다. 또한 “한-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에너지, 투자, AI 산업 전반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간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상협정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도엽 (044-203-5750)
	통상협정이행과	담당자	사무관	이선주 (044-203-5753)
	통상협정정책관	책임자	과 장	김봉석 (044-203-5760)
	통상협정활용과	담당자	사무관	양용태 (044-203-5767)